

입원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문 호 진¹⁾ · 신 성 레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아동의 입원에 있어 부모는 간호대상자인 아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아동-부모-간호사의 3자 관계에 있어서 교량역할과 통역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입원 환아 관리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Cho, 1991). 따라서 입원 환아가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여 질병으로부터의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입원으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적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원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입원한 아동은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정서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자녀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는 환아에게 적절한 적응과 질병치료,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Cho, 1995). 따라서 아동의 간호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환아의 빠른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rlando(1961)는 간호를 '환자에게 필요한 즉각적인 도움 혹은 욕구를 발견하고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입원 환아에게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가 아동의 치료 및 병원생활과 관련하여 갖게되는 간호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소아 암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들로 대부분은 장기적 재원 기간이 필요 되는 환아의 경우였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입원한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사정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질환과 입원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불안정도를 측정하거나(Ahn, 1992; Cho, 1992), 불안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재 효과를 측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Yang, 2000), 스트레스(Kim, 1989; Wang, 1998), 대처(Oh, 1997; Yoo, 1998), 사회적 지지(Chon, 1999)가 입원환아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간호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들 개념이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과 이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핵가족화 와 가구 당 자녀수 감소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모의 지식수준 향상으로 자녀의 급, 만성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는 최상급의 치료를 요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연구에서 밝혀진 영향변수들이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아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을 요하는 급성기 환아 어머니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주요어 : 입원, 간호요구, 불안, 사회적 지지

1) 서울위생병원 간호사, 2)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hinsr@syu.ac.kr)

투고일: 2003년 8월 27일 심사완료일: 2003년 8월 29일

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게 됨으로써 병원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입원한 환아 어머니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와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와 간호요구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입원 시 환아 어머니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정도를 파악하고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 정도를 알아본다.
- 간호요구와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간호요구(Nursing needs)

신체 및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서 내부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상태를 뜻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결핍이라 정의한다(Yoo, 1995). 본 연구에서는 Moltor(1979)가 개발하고 Cho(1999, 2000)가 수정, 보완한 '중환자 가족 간호요구 도구'를 급성기 아동의 상황에 맞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측정된 점수이다.

•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자극(stressor)에 대한 유기체의 비 특이적 반응이다(Selye, 1980). 본 연구에서는 Yoo(1998)가 개발한 '구순·구개열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참고로 하여 급성기 환아에게 적용가능한 문항만으로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적응대처(Coping)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손상이나 위협,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상황을 재정리하여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Yoo, 1998).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등(1983)의 '부모 대처 척도(The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CHIP)'를 Tac과 Lee(1997)가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원조로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Barandt와 Weinert(1981)가 고안한 '개인 자원 질문지(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PRQ)'를 Oh등(1994)이 보완한 것으로 Part I과 Part II로 구성된 것 중 Part II(사회적 관계차원)로 측정된 점수이다.

• 부담감(Burden)

가족 구성원 중 일원이 질병을 갖게 되면서 환아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갖게 되는 반응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느낌, 태도, 감정을 뜻한다(George & Gwyther, 1986). 본 연구에서는 Suh 와 Oh(1993)가 개발하고 Yang(2000)이 수정한 '부담감 측정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불안(Anxiety)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특별한 위협이나 대상 없이 막연하게 일어나는 긴장과 염려의 상태가 확산된 감정이다(Kim, 1976).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1972)의 '불안 상태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국인에 맞게 Kim(1978)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4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를 간호하는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성질환이나 치료 불가능한 악성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환아를 간호하는 어머니

-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본 연구에서 총 400명이 응답하였으나 이 중에서 요구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305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7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본 연구를 이해하고 소아과 병동에 임상경험이 있는 실무 간호사)이 직접 해당 병동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직접 만나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선행연구(Suh, et al., 1999)에서 입원 2일째와 7일째에는 간호요구가 크게 차이가 없음이 파악되었고 입원 첫 날은 여러 가지 입원절차와 검사, 다양한 입원시간으로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어 입원 2일째로 택하였으며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소아과 병동의 입·퇴원 절차와 여러 가지 검사 등의 관계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였다.

연구도구

- 간호요구 측정도구

Moltor (1979)가 개발, Cho(1999)가 변안한 '중환자 가족 간호요구 측정도구'를 Choi(2000)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어머니의 간호요구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7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94$)를 구한 후 본 연구 조사에 사용하였다. Choi(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다.

- 스트레스 측정도구

Yoo(1998)가 개발한 '구순·구개열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급성질환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89$)를 구한 후 사용하였다.

Yoo(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었다.

- 적응대처 측정도구

McCubbin등(1983)이 개발한 '부모 대처 척도(The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CHIP)'를 Tac과 Lee(1997)가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어머니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91$)를 구하였다.

본 도구를 이용한 Chon(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이었다.

-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Barandt와 Weinert(1981)가 고안한 '개인 자원 질문지(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PRQ)'를 Oh(1997)가 변안한 것으로 Part I과 Part II로 구성된 것 중 Part II(사회적 관계차원)를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Cronbach's $\alpha=.61$)를 구한 후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 중 4번, 10번, 16번은 부정적 문항으로 역환산 한 후 통계처리 하였다.

Part II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고, Yang(2000)의 학령전기 장애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이었다.

- 부담감 측정도구

Su와 Oh(1993)가 개발한 25문항의 '부담감 측정도구'에 Yang(2000)이 3문항을 추가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본 조사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Yang(2000)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9였다.

- 불안 측정도구

Spielberger(1972)의 '불안 상태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Kim(1978)의 것 중 상황불안만을 발췌하여 본 조사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상황 불안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분석을 위하여 긍정적 문항은 역 환산처리 하였다.

Cho(1992)의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상황불안이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의 제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입원 환자 어머니의 간호요구는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와의 관계는 t-test, ANOVA, 그리고 Scheffe검증으로 분석하였다.
- 입원 환자 어머니의 간호요구와 변인들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독립변수인 불안과 사회적 지지가 간호요구와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Durbin & Watson 값이 1.975로 α 값 .05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또한 1.68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Kim, 2002).

-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입원 환아 어머니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할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제 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제 특성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결혼기간, 직업, 가사조력자 여부, 가족형태, 종교, 거주지, 월수입, 건강상태, 남편과의 관계, 남편의 조력 여부, 환자의 연령, 환자의 성별, 출생순위, 입원횟수, 만성질환에 대한 가족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1-30세와 31-40세가 각각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67.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대부분 결혼으로 대상자의 97.5%를 차지하였으며, 결혼기간은 4-6년이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대상자의 직업여부에서는 전업주부가 7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가사에 대한 조력여부는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관계로 조력자가 없다는 경우가 74.1%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종교여부에서는 69.5%가 무교였으며 거주지는 98%가 주택(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가정의 월수입은 101-199 만원대가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가 58.0%였으며, 남편과의 관계는 원만하다가 82.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환아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서의 환아 연령은 1-12개월이 전체의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환아의 성별은 남아가 81.3%, 여아가 18.7%로 나타났다. 환아의 출생 순위는 둘째가 56.1%, 첫째가 34.1%의 비율을 보여주었고, 환자의 입원회수는 1회가 62%, 2회는 22.6%, 3회 이상도 15.4%를 차지하였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 간호요구 정도의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Range of participants' nursing needs,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burden, and anxiety

variables	mean	SD	range
nursing needs	3.57	.39	2.93 - 3.90
stress	2.64	.46	1.94 - 3.56
coping	3.01	.48	2.34 - 3.50
social support	3.55	.79	2.06 - 3.97
burden	2.75	.82	1.96 - 3.69
anxiety	2.11	.79	1.23 - 2.99

대상자의 환아에 대한 간호요구, 스트레스정도, 적응대처는 4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평점 3.57, 2.64, 3.01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입원에 대한 부담감은 5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평점 3.55, 2.75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환자의 입원에 대한 불안감은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11로 나타났다.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그리고 Scheffe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요구 정도는 제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21-30세가 20세 이하, 31-40세 이상, 41세 이상보다 높은 간호요구를 나타내었으며,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높은 간호요구를 보였다.

결혼상태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는 현재 결혼하고 있거나 사별한 경우에 입원 환아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았다. 또한 결혼기간은 4-6년이 1년 미만, 1-3년, 7-10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간호요구를 보였고,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의 간호요구가 높았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간호요구를 보였다.

<Table 2> Nursing needs of mothe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needs		
		Mean(SD)	t/F	p
age	less than 20	2.90(.00) ab	9.336	.000
	21-30	3.69(.38) a		
	31-40	3.52(.42) ab		
	more than 41	3.40(.18) ab		
education	elementary	3.19(.45)	3.706	.012
	junior high	2.96(.00)		
	high	3.55(.40)		
	college	3.64(.37)		
marital status	married	3.58(.39) a	3.686	.012
	widowed	3.59(.16) ab		
	separated	2.71(.37) b		
	divorced	3.29(.70) ab		
years married	less than 1	3.29(.41) ab	6.282	.000
	1-3	3.47(.30) ab		
	4-6	3.68(.40) a		
	7-10	3.47(.40) ab		
	more than 11	3.64(.39) ab		
occupation	salaried position	3.41(.31)	5.107	.000
	business	3.37(.36)		
	student	3.34(.51)		
	full time housewife	3.64(.40)		
	others	3.41(.30)		
religion	protestant	3.40(.29) ab	1.830	.000
	catholicism	3.38(.39) ab		
	buddhism	3.38(.45) ab		
	none	3.65(.38) a		

동일한 분자표시: 각 특성내 집단상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p<.05)

입원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 간호요구와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 그리고, 간호요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305)

	X1	X2	X3	X4	X5	X6
X1 nursing needs	-					
X2 stress	.324**	-				
X3 coping	-.158**	-.165**	-			
X4 social support	-.659**	-.240*	.162*	-		
X5 burden	.064	.428**	.048	-.069	-	
X6 anxiety	.758**	.274**	-.208*	-.664*	-.049	-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와 변인들간의 관계에서는 불

안(r=.758, p<.01), 사회적 지지(r=-.659, p<.01), 스트레스(r=.324, p<.01), 적응대처(r=-.158, p<.01)가 간호요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안이 간호요구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의 영향요인

제 특성을 제외하고,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인 불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mothers' nursing needs (n=305)

	β	R	R ²	F	p
anxiety	.562	.758a	.575	409.749	.000
social support	-.263	.786b	.618	244.353	.000
stress	.096	.793c	.629	170.067	.000

- a. 예측인자(predictors): 불안
- b. 예측인자(predictors): 불안, 사회적 지지
- c. 예측인자(predictors): 불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불안, 사회적 지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간호요구와 높은 상관관계(r=.793)를 보여 이들 변수가 간호요구를 설명하는데 있어 각각 적합한 변수로 해석되었다.

또한 불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안이 57.5%, 사회적 지지가 4.3%, 스트레스가1.1%를 설명하였으며 이들 변수 모두는 간호요구를 6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는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57로 높은 간호요구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2000)의 아동 입원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확실성 지각 정도와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가 4점 척도에서 3.37로 나타난 결과와 Suh, Kwan, Jo와 Choi(1999)의 입원 환아 부모의 간호요구가 5점 척도에서 입원 2일째 3.93점과 7일째 3.99와 비교할 때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00)에서 뇌성마비 아동을 돌보는 주 가족원의 간호요구가 5점 척도에서 3.59로 나타난 결과와 Kim(1990)의 소화기계 선천성 기형아의 성장·발달과 어머니의 간호요구

인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5점 척도의 3.81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원한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지지와 실제적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에 관계없이 높은 간호요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핵가족화와 가구 당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모의 지식수준 향상으로 자녀의 급·만성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단순히 치료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를 찾는 부모들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는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이 2.64로 나타났다. 이는 Yoo(1998)의 구순 및 구개열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4점 척도의 2.78과 Kim(2000)의 구순 및 구개열 환아 어머니의 대처행위와 스트레스의 관계연구에서 4점 척도의 2.86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입원에 대한 적응대처는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이 3.01로 다소 높은 대처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Kim(2000)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4점 척도의 3.08과 Yoo(1998)의 연구에서 4점 척도의 3.1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Oh(1997)의 아동 입원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지각 정도와 대처노력에 관한 연구에서 4점 척도의 3.04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들은 병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돕고, 위안을 얻으며,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해 대처방안을 미리 습득할 수 있어 비교적 높은 양상의 대처행위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입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5로 비교적 높은 지지수준을 나타내었으며 Tac, Yo와 Park(2000)의 입원 환아 가족의 대처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질환이 급성일수록 사회적 지지에 따른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병원체제는 외국의 것과는 달리 환자가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환자를 돌보는 특성을 갖게 되고 아픈 아이와 부모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됨을 설명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 사회는 핵가족과 적은 자녀의 수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조부모의 관심과 지지까지 받으므로 인하여 지지정도가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Lefcourt(1985)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인 여성은 남성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를 요하며, 이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 대상자가 입원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였으므로 주어진 지지 정도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보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입원에 대한 부담감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75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낸 부담감 정도는 Paik(1995)의 암 환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에 관한 연구에서 10점 만점 중 평균 8.04와 Lee(1996)의 소아 암 환자 어머니의 부담감, 사회적 지지와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5점 척도 2.92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담감이 다소 낮게 나타나 것은 본 연구대상이 만성질환이나 치료 불가능한 악성질환을 제외한 급성질환의 환아 어머니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70%이상이 전업주부였으므로 직장으로 인해 환아를 돌보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낮아 더욱 그러한 결과를 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은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이 2.11로 보통 수준 이하의 불안을 나타내었다. 이는 Cho(1992)의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연구에서 입원 환아 어머니군의 불안 점수(105.9)가 정상아 어머니군의 불안점수(84.7)보다 높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입원 환자의 예후가 나쁘게 예측되는 군에서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Cho(1991)의 심장병 환자 부모교육이 환아모의 불안 및 지식 정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상태불안 평균평점 2.64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예후와 단기간의 입원, 그리고 주위에 비슷한 질환을 가진 환아들의 치료과정을 관찰하며 어느 정도 예측된 입원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입원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 간호요구와의 관계에서는 불안($r=.758, p<.01$), 사회적 지지($r=-.659, p<.01$), 스트레스($r=.324, p<.01$)가 간호요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간호요구와 불안과의 관계는 Yang(2000)의 응급실 환자가족의 불안과 간호요구 연구에서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불안감이 높은 경우 간호요구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아동에게 전달되어 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Kim et al., 1996; Cho, 1991)에 따라 아동의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간호사는 어머니의 반응을 사정하고 적절한 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Fagon과 Schor(198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보호자는 부모역할의 안녕감과 만족을 느끼며 수행능력의 향상

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 학생 신분의 어머니들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보인 반면 간호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의 문제로 인해 부모역할의 자신감이 없는 대상자들에게서 높은 간호요구를 볼 수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Yang(2000)의 학령전기 장애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아 어머니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상자의 간호요구와 스트레스의 관계는 비슷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 간호요구는 어머니의 건강이 그저 그렇거나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군,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하여 직접 환아를 관찰하거나 돌보지 못하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아를 자신의 의지대로 최선을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어 환아를 관찰하고 돌보는데 부담을 느끼는 군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요구,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Chon(1999)의 소아 암 환아 가족의 스트레스, 인지적, 사회적 지지,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소아 암 환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가족의 스트레스 적응 능력에 유용하다는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Kim(1989)의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을 통해 환아 어머니들의 가장 큰 간호요구 관심사인 자녀질병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정도는 만성질환이나 악성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보다는 다소 낮은 불안과 스트레스, 높은 사회적 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추후 만성 질환을 가진 환아 중 예후나 질병기간에 따른 차이와도 비교하는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간호요구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간호요구와 상관계수가 높았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불안 중 간호요구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불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1994)의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적응과 질병치료,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환아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불안을 가중시켜 치료를 지연시키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 개발 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요인은 입원 시 환아 어머니가 겪게 되는 불안을 사정하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Yang(2000)의 응급실 환자가족의 불안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Yang(2000)의 연구에서는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환자를 처음 대면하는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초기에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며 불안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간호조치를 시행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이 심리적·신체적 응급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관찰하고 간호하므로 의료인 중에서 환자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의료인으로 적절한 지지와 중재를 통하여 환자와 그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면 대상자의 간호요구와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원 환아의 효과적인 간호를 위하여 환아 어머니의 불안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영향을 주는 연구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입원한 환아 어머니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7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4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급성질환 환아를 간호하는 어머니 305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립된 간호요구,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부담감 그리고 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입원한 환아에 대한 대상자의 간호요구는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57, 대상자가 지각한 스트레스의, 적응대처 정도, 환아의 입원에 대한 불안은 4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 평점 2.64, 3.01, 그리고 2.11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대상자가 지각한 환아의 입원에 대한

- 부담감은 5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평점 3.55, 2.75 이었다.
-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 정도는 제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요구 정도는 대상자의 연령이 21-30세,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현재 결혼하고 있거나 사별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기간은 4-6년이고,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의 간호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고,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상자에게서 간호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와 변인들간의 관계에서는 불안($r=.758, p<.01$), 사회적 지지($r=.659, p<.01$), 스트레스($r=.324, p<.01$)가 간호요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이 간호요구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758, p<.01$),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제 특성을 제외하고 스트레스, 적응대처, 사회적 지지, 부담감, 불안이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불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간호요구를 각각 57.5%, 4.3%, 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는 만성 및 악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어머니와 같이 높은 간호요구를 보였으나 그 외의 변수들에서는 보통 수준의 스트레스와 다소 낮은 불안을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요구와 불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는 서로 상관성이 있었으며, 대상자의 불안,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간호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환아 입원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 프로그램에서 대상자의 불안,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입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가 대상자의 일반적 제 변수들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일반적 제 변수들을 사정하고 그 결과를 간호중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서울시내 2개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다 신뢰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대, 표준화하여 보다 다양한 양상의 입원 환아 어머니의 간호요구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주로 만성질환이나 악성질환을 위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므로 급성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환아 어머니로 국한되었지만, 핵가족화와 가구 당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 양육의 책임이 결코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동참하게 되므로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게 확대시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중재를 위한 접근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입원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리라 본다.

References

- Ahn, H. Y. (1992). *A Study on The Anxiety-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Master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Barandt, P. A., & Weinert, C. (1981). The PRQ: A social support system. *Nurs Res*, 30, 371-375.
- Cho, H. S. (2000). *A Study on Nursing Needs of the Main Family Members Attending to Preschoolers of Cerebral Palsy*.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 I. S. (1992). *Anxiety of the Pediatric Inpatient's Mother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unnam.
- Cho, K. M. (1991).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Program for Congenital Heart Disease Child on the Mother's Anxiety and Knowledge*.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 K. Y. (1999). *A Study on Needs of the Families of Head Injury Patient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usan.
- Cho, Y. H. (1994). *Mothers Reaction to Hospitalization of Children*. Department of Nursing.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i, Y. S. (2000). *A Study on Nursing Need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Families in a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wandong University of Korea, Kangwon.
- Chon, Y.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Members Attending to Preschool of Cerebral Palsy*.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Fagon, J., & Schor, D. (1983). Mother of children with spine bifida: Factors related to maternal psychosocial functioning. *Ame J Orthopsychiatry*, 63(1), 146-152.
- George, L. K., & Gwyther, L. P. (1986) Caregivers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253-259.
- Kim, H. S. (1989). *The Effects of An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Group on The Stress of Mother with A Chronically Ill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T. (1978). *Relationship of Special Anxiety and Sociality*.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K. S. (1976).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Seoul: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Co.
- Kim, K. S. (2002).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PSS Academy Publishing Company. 230-235.
- Kim, M. O. (1990). *A Study on Digestional Growth, Development of Congenital Malformed Child and Nursing Needs Acknowledgment of Congenital Malformed Child's Mother*.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 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M. Y., Kowan, I. S., Kim, E. K., Paick, K. S., Song, I. S., Shin, S. S., Oh, S. E., Jung, K.A., Jung, S. E., & Jo, K. C. (1996). *Pediatric Nursing I*. Seoul: Sumunsa.
- Kim, Y. (2000). *Relationship of the Coping and Stress in Cleft-lip and Cleft-palate Children's Mother*.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onbuk.
- Lee, E. J. (1996). *The Burden,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fcourt, J. M. (1985). *Intimacy,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Moderators of Stress*. In IG. Sarason., & B.B.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155-172. Netherlands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McCubbin, H. I., McCubbin, M. A., Patterson, L. M. Cauble, A. E., Wilson, L. R., & Warwich (1983). CHIP-Coping inventory for parents An assessment health coping patterns in the care of the chronically ill child. *J of Marr and The Fam*, 4, 359-369.
- Oh, J. A. (1997). *A Study on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Coping Effort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Oh, K. S., Suh, M. H., Lee, S. O., Kim, J. A., Oh, K. O., Jung, C. J., & Kim, H. S. (1994). Search for the meaning of social support in Korean society. *J Korea Acad Nurs*, 24(2), 264-277.
- Orlando, I. (1961). *The dynamic nurse-patient relationship*. New York: G.P. Putnam's Sons.
- Paik, S. H. (1995). *Social Support and Burden Wi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ungnam.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32-49.
- Suh, M. H., & Oh, K. S. (1993). A study of well-being in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s. *J Korea Acad Nurs*, 23(3), 467-484.
- Su, Y. M., Kwan, I. S., Jo, M. O., & Choi, U. J. (1999). Nursing needs of parents with hospitalized child. *J Korea Acad Pedia Nurs*, 5(1), 59-69.
- Tac, Y. R., Yo, J. Y., & Park, Y. I. (2000). Family coping of family who has a hospitalized child. *J Korea Acad Pedia Nurs*, 6(2), 240-248.
- Tac, Y. R., & Lee, H. Y. (1997).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family who has a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 *J Korea Acad Pedia Nurs*, 3(1), 42-51.
- Wang, K. H. (1998). *A study on the Stress and the Coping Method of Parents Caring for Childhood Cancer Patient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of Korea, Pusan.
- Yang, K. M. (2000). *Burden and Social Support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of Preschool Age*.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f Korea, Chun-nam.
- Yang, S. N. (2000). *A Study of the Burden and Coping in Mothers with Chronically Ill Childre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Yoo, E. J. (1995). *Care Need of the Senile Dementia Patient's Family*.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Yoo, O. N. (1998). *A Study on the Stress of Cleft-lip or/and Cleft-palate Children's Mothers and their Coping Effort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Study on Determinants of Nursing Needs of Mothers with Hospitalized Children

Moon, Ho-Jin¹⁾ · Shin, Sung-Rae²⁾

1) RN., Seoul Adventist Hospital,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needs of mothers caring for children suffering from acute diseases and being treated in hospital.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nursing needs, social support, burden, and stress questionnaire.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uly 10, to October 20, 2001 in the pediatric department of a general hospital.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rsing need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ligion, family income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ing needs of the mother and anxiety ($r=.758$, $p <.01$), social support ($r=-.659$, $p <.01$), stress ($r=.324$, $p <.01$) wer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nxiety, social support and stress define nursing needs at 57.5%, 4.3% and 1.1% respectively. **Conclusion:**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anxiety, social support and stress whe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mothers whose children are hospitalized with acute diseases.

Key words : Admission, Nursing needs, Anxiety, Social suppor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Sung-Rae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Cheongnyangni P.O. Box 118, Seoul 130-650, Korea

Tel: +82-2-3399-3646 Fax: +82-2-3399-3647 E-mail: shinsr@syu.ac.kr